

# 주일 예배 순서

- 주현 후 제6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편 24:1-6 .....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 36장(새 36장) .....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6번(새 9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오니 하루하루가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세월을 아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주님과과의 거룩한 사귄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과 전쟁과 자연재앙을 볼 때 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끝까지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케 하옵소서. 또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 마태복음 7:13-14 ..... **인도사**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의 힘든 이유

봉 헌(offering) ..... 1장(새 1장) .....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사**

찬 송(Hymn) ..... 253장(새 521장) .....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지난 주에 새로 오신 분들  
정태옥권사님, 허춘희권사님, 신숙경권사님, 임숙재권사님
2.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용 컵을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친교시간에 합동임원회로 모입니다.
4. 다음 주에는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난민들을 위한 특별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세계 각국에 이상 기후와 전쟁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좌골 신경통), 신성화집사님 어머니,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니, 임현정사모님 어머니

<말씀묵상> 마태복음 7:13-14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13절) 나는 이 문이 어떤 문인지 알고 경험했습니까?
2.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14절) 나는 이 문이 어떤 문인지 알고 있으며, 지금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보다 더 경계하고 적대시해야 할 대상 바로 자아입니다. 사탄도 우리의 옛 자아가 올라오도록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자아에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의 속성은 스스로 왕이 되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의 뜻에 거슬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가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끊임없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도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것이 됩니다.

이와 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못 박힌 사람은 더이상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안달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6:38-39) 예수님은 일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원하시는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자신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었기에 우리 또한 그분의 삶과 죽음을 본받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도 나의 영적인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나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자아성취를 향해 혈떡이며 달려간다면 나도 모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